

##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

Ego-Identities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Adolescents

유 안 진\*\*  
Yoo, An Jin

민 하 영\*\*\*  
Min, Ha Yeoung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ego-identities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adolescents differ by grade, gender, reason for and length of residence, age at entering the institution, parents' visiting, relationship with parents before entering the institution, and caretakers' emotional support. We assumed that the ego-identities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had an effect on social interactions. The subjects were 121 5th and 6th graders, 135 middle, and 85 high school students who were institutionalized in Seoul. As predicted, the ego-identities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adolescents differed by grade, and by such social interactions as parents' visiting, relationship with parents before entering the institution, and caretakers' emotional support. Results support the importance of social interactions for understanding the ego-identities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adolescents.

### Key Words

시설 아동 및 청소년(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adolescents ), 자아정체감( ego-identities)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 이 연구는 1999년도 학술 진흥재단 두뇌한국21 핵심분야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아동학과 전임강사

## I. 서론

부모를 잃었거나 부모 및 보호자의 결격사유로 인해 보호받을 수 없는 고아, 기아, 장애아, 결손, 빈곤가정 아동 등과 같은 요보호 아동은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호시설, 교호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집단 보호받고 있다. 이중 부모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정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내 육아시설에서 보호 및 양육되고 있다(변용찬·이상현, 1998).

육아시설 내 시설 아동들은 전형적으로 부모부재로 입소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부모의 이혼, 재혼, 가출 등 부부불화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입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변용찬·이상현, 1998). 따라서 시설 아동들은 부모가 없다는 또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생활하거나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일반 아동에 비해 높은 소외감을 경험하기 쉽다(문진명, 2000). 그러나 개인이 경험하는 소외감이 자아정체감과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음(강완숙, 2000; 오경주, 1998)을 고려해 보면, 시설 아동의 소외감은 그들의 자아정체감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일 수 있다.

Erikson(1968)에 의해 언급된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의 중요 발달과제로, 모든 아동에게 의미 있게 다루어지는 자아개념이나, 일반 아동에 비해 높은 소외감을 경험하는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은 그들이 경험하는 소외감을 예방하거나 극복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 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김영숙, 1993; 장희순·이영, 1990)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인성 발달의 심리·사회적 측면을 강조하여, 사회적 대인관계를 통한 자아정체감 발달을 강조한 선행 연구(Cooley, 1902, Dignan, 1965; Erikson, 1968, 1980; Mead, 1934)를 고려해 볼 때,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이었던 일반 아동과의 자아정체감 비교 연구(김민자, 1991; 김영숙, 1993; 조현경, 1995)에서 벗어나,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 변량을 설명할 수 있는 일련의 변수를 규명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아정체감이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개인적 답으로, 시간적, 상황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전히 고유한 동일한 존재로서 인식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된 아동은 자신이 비록 또래와 유사한 흥미나 가치 등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또래와 다른 독특한 개인으로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역할이 어떻든 간에 흥미나 가치 등에서 긍정적인 ‘전체로서의 자기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아정체감은 자기 일관성 또는 자기 동일성을 견지해 나가려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노력의 원동력으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은 소외된 심리, 물리적 환경 안에서도 적응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청소년기를 전후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자아정체감은 Erikson이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상호작용 특히 개인이 접촉 확대해가는 사회적 관계, 예를 들어 부모나 또래 등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고 있음이 선행 연구(도현심·최미경, 1998; 박영애, 1995; Gecas & Schwalbe, 1986)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에 전

후한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이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 시설 입소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 입소 사유, 입소 기간, 입소 시기, 부모 접촉 유무 등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나 시설 입소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 등이 시설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인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변수라면 입소 사유, 입소 기간, 입소 시기, 부모 접촉 유무 등은 시설 입소와 관련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인관계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변수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그들의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없다. 특히 시설 입소 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와 연결시켜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살펴본 연구는 없다. 시설 입소 전 부모와의 관계는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생의 초기 부모와의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현재까지 지속되지 않는 과거의 경험이라 하더라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Bowlby(1980)가 내적 수행모델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의 초기에 형성된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는 이후 생의 발달 과정에서 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백지숙, 2000; Bowlby, 1980; Cassidy, 1988; Goldberg, 1991; McCormick & Kennedy, 1994)시키기 때문에, 시설 입소 전에 경험하는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가 간헐적이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 입소후라도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의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는 현재 시설 아동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육사의 높은 정서적 지지는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으로서 시설아동에게 긍정적인 면경자아(mirror self)를 제공하는 주요 통로이기 때문에 그들의 긍정적인 자아정체

감 형성에 일련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입소 기간이나 취학 전 또는 취학 후 등의 입소 시기, 입소 후 부모와의 접촉 여부는 부모나 보육사 등 사회적 대인관계의 단절 시기나 지속 연수를 암시적으로 시사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변수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빈곤이나 부부간 불화 등은 자녀학대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어주경·정문자, 1999; Conger, Conger, Elder, Lorenz, Simons, & Whitbeck, 1992)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부재 외에 경제적 빈곤이나 부부간 불화 등의 입소 사유는 시설 아동의 사회적 관계의 질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또 하나의 사회적 관계 변수로 간주될 수 있다.

자아정체감의 중요한 발달 근원이 사회적 관계임을 고려해 볼 때,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변수 규명은 궁극적으로 시설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 및 육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아정체감 발달 시기에 있는 청소년기 전후의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아정체감 변량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변수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인구학적인 기본자료를 얻기 위해 학년 및 성별의 인구학적 변수와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관련 변수(학년, 성별, 입소 사유, 입소 기간, 입소 시기, 부모접촉 유무, 입소 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 및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 및 관련 변수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은 관련 변수(학년, 성별, 입소 사유, 입소 기간, 입소 시기, 부모접촉 유무,

입소 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 및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제로 간주되는 자아정체감이 후기 아동기의 자아정체감을 근거로 동화, 조절 과정을 통해 형성됨(Chubb, Fetman, & Ross, 1997)을 고려하여, 아동복지 육아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5, 6학년 학령기 아동과 중, 고등학생의 청소년을 시설 아동을 대표하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시설 아동은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연합회 소속의 서울 소재 육아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총 341명으로 5, 6학년 초등학생 121명(남 59명, 여 62명), 중학생 135명(남 58명, 여 77명), 고등학생 85명(남 44명, 여 41명)이었다. 조사대상 시설 아동의 평균 연령은 2000년 2월 현재, 초등학생 12-13세, 중학교 14-15세, 고등학교 16-17세였으며, 평균 입소년도는 초등학생 95년 2월, 중학생 92년 7월, 고등학생 89년 2월로 나타나 평균 8세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조사도구

#### 1)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을 살펴본 선행연구들(박경란, 1997; 박아청, 1995; 조현경, 1995; Adams & Fitch, 1982; Dignan, 1965)에서 사용한 척도를 토대로 자아정체감 측정도구를 구성한 후, 3인의 아동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았으며 예비 조사를 통하여 질문지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자아정체감 척도는 자아목표감(목표 성취에 대한 의지), 자아미래감(자신의 인

생목표가 무엇이며 자기의 행동 방향과 자신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 자아수용감(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규준에 비추어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자아상), 자아주도감(자기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인식하고 타인에 대해 이를 표명할 수 있는 태도와 경향성), 대인친밀감(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자신의 일반적 경향)의 5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5 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척도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각 영역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61, .70, .60, .63, .61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그렇다(1점)'에서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점수는 25점부터 100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아정체감을 의미한다. 척도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2로 나타났다.

#### 2) 시설 입소 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

시설 입소 전 부모로부터의 지지적인 양육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Furman과 Buhrmester(1985)의 관계망 척도(Network of Relationship Inventory: NRI)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한 후, 3인의 아동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총 9 문항의 시설 입소 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 척도는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응답점수는 9점부터 45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 입소 전 부모와 높은 지지적 관계

를 형성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9로 나타났다.

### 3)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

시설 아동이 지각한 보육사로부터의 인정이나 관심을 측정하기 위한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는, 성영혜(1993)와 한미현(1996)의 사회적 지지척도 문항 및 김형태(1989)의 가정의 심리적 환경 측정 문항을 참고로 구성하였다. 10문항으로 구성된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 척도는 각각 '그렇지 않다(1점)'에서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응답범위는 10점에서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76으로 나타났다.

### 3. 조사절차

본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될 척도 구성을

위해 2000년 1월 28일에서 2월 2일에 걸쳐 서울 소재 아동복지 육아시설 1곳에서 5, 6학년 초등학생 20명과 중, 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조사는 2000년 2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서울지역에서 편의표집된 아동복지 육아시설에서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연구자 1명과 연구보조자 1명이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 아동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요령을 설명한 후,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집 대상은 2000년 2월 현재 5, 6학년 초등학생 131명, 중학생 135명, 고등학생 97명으로 총 36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22부를 제외한 341부가 최종적으로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9.0 프로그램의 Cronbach's  $\alpha$ 계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t검증, F검증, Scheffé 검증,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 및 관련 변수에 관한 평균이나 빈도, 최소-최대 값 등을 <표 1>에서 살펴보았다. 성별의 경우 남아보다 여아가 많았으며, 입소 원인의 경우 경제적 문제나 부모부재로 입소한 경우보다 가정불화로 입소한 경우가 많았다. 입소 시기의 경우 유아기 이전과 이후를 의미하는 취학 전 입소와 취학 후 입소로 구분하였으며, 입소 기간의 경우 시설 아동의 평균 입소 기간이 7년인 점을 고

려하여 7년 미만과 7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부모 접촉의 경우 지난 6개월 사이 부모와 직접 만나 상호작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취학 후 입소한 아동보다 취학 전에 입소한 아동, 그리고 입소 기간이 7년 미만인 아동이 7년 이상된 아동보다 좀 더 많았으며, 부모와 접촉하지 않는 아동이 접촉하는 아동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 및 관련 변수에 관한 기초 자료

변수	구분	변수값	빈도(%)	평균(SD)	최소-최대	
인구학적 변수	학년	초등학생	1	121(36.1)		
		중학생	2	129(38.5)		
		고등학생	3	86(25.4)		
	성별	남	1	156(46.4)		
		여	2	180(53.6)		
	사회적 관계 변수	입소 사유	경제적 문제	1	44(15.4)	
가정불화			2	158(55.4)		
부모부재			3	83(29.1)		
입소 시기		취학 전 입소	1	143(43.9)		
		취학 후 입소	2	183(56.1)		
입소 기간		7년 미만	1	170(51.8)	7.3(4.2)	1-18
		7년 이상	2	158(48.2)		
부모 접촉		유	1	72(28.9)		
		무	2	177(71.1)		
자아 정체감	입소전 부모관계		244	28.6(8.1)	9-44	
	보육사 지지		308	27.9(5.2)	13-40	
	자아정체감		294	67.8(11.0)	39-99	
	자아목표감		327	12.6(2.8)	5-20	
	자아미래감		330	14.4(3.4)	5-20	
	자아수용감		321	13.8(3.2)	5-20	
	자아주도감		325	13.9(2.7)	7-20	
	대인친밀감		325	13.7(3.3)	5-20	

### 1.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 아동의 자아 정체감과 관련 변수 및 관련 변수간 상관 관계

자아정체감과 관련 변수 및 관련 변수끼리의 관련성을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본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위 영역을 포함한 자아정체감은 학년( $r = -.149, p < .05$ ), 부모접촉 유무( $r = -.161, p < .05$ )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시설 입소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 $r = .261, p < .001$ ), 보육사의 지지( $r = .295, p < .001$ )에 따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학년이 낮을수록 자아정체감( $r = -.149, p < .05$ ), 자아수용감( $r = -.111, p < .05$ ), 대인친밀감( $r = -.145, p < .01$ )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부모와 접촉할 때 자아정체감( $r = -.161, p < .05$ ), 자아미래감( $r = -.145, p < .05$ ), 자아주도감( $r = -.135, p < .05$ ), 대인친밀감( $r = -.196, p < .01$ )이 높게 나타났다.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가 지지적일수록 자아정체감( $r = .261, p < .001$ ), 자아미래감( $r = .239, p < .001$ ), 자아주도감( $r = .155, p < .05$ ), 대인친밀감( $r = .330, p < .001$ )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아정체감( $r = .295, p < .001$ ), 자아목표감( $r = .209, p < .001$ ), 자아미래감( $r = .250, p < .001$ ), 자아수용감( $r = .232, p < .001$ ), 자아주도감( $r = .149, p < .01$ ), 대인친밀감( $r = .143, p < .05$ )이 높게 나타났다.

<표 2>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관련변수간 상관관계

	자아 정체감	자아 목표감	자아 미래감	자아 수용감	자아 주도감	대인 친밀감	학년	성별	입소 사유	입소 시기	입소 기간	부모 접촉	부모 관계
자아 정체감	1												
자아 목표감	.610***	1											
자아 미래감	.739***	.340***	1										
자아 수용감	.765***	.375	.500***	1									
자아 주도감	.683***	.305***	.324***	.347***	1								
대인 친밀감	.728***	.229***	.331***	.443***	.476***	1							
학년	-.149*	.004	-.240	-.111*	.030	-.145**	1						
성별	.005	-.100	-.051	-.041	.000	.064	-.013	1					
입소 사유	.027	.057	-.053	.074	.042	.028	.135*	-.011	1				
입소 시기	.019	-.025	.098	.080	-.018	.000	-.18***	.013	-.202***	1			
입소 기간	-.052	.054	-.147**	-.097	.035	-.080	.556***	-.007	.281***	-.772***	1		
부모 접촉	-.161*	-.013	-.145*	-.047	-.135*	-.196**	.057	-.101	.113	-.142*	.127*	1	
입소전 부모 관계	.261***	.032	.239***	.094	.155*	.330***	-.221***	-.045	-.086	.257***	-.303***	-.239***	1
보육사 지지	.295***	.209***	.250***	.232***	.149**	.143*	-.328***	.001	-.086	.097	-.199***	.000	.256***

\* p < .05, \*\* p < .01, \*\*\* p < .001

주) 사례수는 235~335명으로 변수간 결측치로 인해 차이가 남.

이외 자아정체감 중 자아미래감( $r = -.147, p < .01$ )은 입소 기간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입소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자아미래감이 나타났다.

한편 관련 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년과 입소 사유간( $r = .135, p < .05$ )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학년이 낮을수록 경제적 문제로 입소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 시기는 학년( $r = -.181, p < .001$ ) 및 입소 사유( $r = -.202, p < .001$ )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학년이 낮을수록 취학 후 입소한 경향이 있으며, 취학

후 입소한 아동은 부부불화나 경제적 문제로 입소한 경향이 있다. 입소 기간은 학년( $r = .556, p < .001$ ) 및 입소 사유( $r = .281, p < .001$ )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그리고 입소 시기( $r = -.772, p < .001$ )와 높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학년이 높은 시설 아동일수록 그리고 취학 전 입소한 아동일수록 입소 기간이 길다. 부모접촉 유무는 입소 시기( $r = -.142, p < .05$ )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입소 기간( $r = .127, p < .05$ )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취학 전 입소한 아동의 경우 부모접

측이 없는 경향이 있으며, 입소 기간이 길수록 부모접촉이 없는 경향이 있다. 입소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는 학년( $r = -.221, p < .001$ ), 입소 기간( $r = -.303, p < .001$ ) 및 부모접촉 유무( $r = -.239, p < .001$ )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입소 시기( $r = .257, p < .001$ )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부모와 6개월에 한 번이상 접촉하며, 학년이 낮으며, 입소기간이 짧으며, 취학 후에 입소한 경우일수록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가 더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는 학년( $r = -.328, p < .001$ ) 및 입소 기간( $r = -.199, p < .001$ )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입소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 $r = .256, p < .001$ )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학년이 높을수록 그리고 입소 기간이 긴 아동일수록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고 있으며, 입소전 부모와 높은 지지적 관계를 유지한 아동일수록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관련 변수에 따른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

<연구문제 1>에서 나타난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관련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문제 2>에서는 자아정체감과 관련 변수간의 관련성을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자아정체감과 관련 변수간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인구학적 변수 및 사회적 관계 변수에 따른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은 학년( $F = 4.4, p < .05$ ), 부모접촉 유무( $F = 2.4, p < .05$ ), 입소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 $F = 5.83, p < .01$ ) 그리고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 $F = 9.49, p < .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났다. 초등학생이 중, 고등학생에 비해, 부모를 6개월에 한 번 정도 접촉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가 지지적인 아동이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보육사로부터 높은 정서적 지지를 받는 아동이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높은 자아정체감을 나타냈다. 자아정체감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아목표감은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 $F = 6.74, p < .001$ )에 따라, 자아미래감은 학년( $F = 13.7, p < .001$ ), 입소 기간( $F = 2.6, p < .05$ ), 부모접촉 유무( $F = 2.3, p < .05$ ), 입소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 $F = 6.03, p < .01$ ),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 $F = 8.46, p < .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났다. 자아수용감은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 $F = 5.10, p < .01$ )에 따라 자아주도감은 부모접촉 유무( $F = 2.1, p < .05$ ), 입소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 $F = 3.2, p < .05$ )에 따라, 대인친밀감은 학년( $F = 3.8, p < .05$ ), 부모접촉 유무( $F = 3.1, p < .05$ ) 및 입소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 $F = 9.90, p < .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났다. 초등학생이 중, 고등학생에 비해 자아미래감이나 대인친밀감이 높았으며, 입소 기간이 평균(7년) 미만인 아동이 평균(7년) 이상된 아동에 비해 자아미래감이 높았다. 6개월에 한 번이상 부모와 접촉하는 아동이 한 번도 부모와 접촉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 자아미래감, 자아주도감 및 대인친밀감이 높았다. 한편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가 지지적인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아미래감, 자아주도감, 대인친밀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 보육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는 아동이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자아목표감, 자아미래감 및 자아수용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3> 관련 변수에 따른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

변수	구분	자아정체감	자아목표감	자아미래감	자아수용감	자아주도감	대인친밀감
학년	초등학생	70.5(11.6) a	12.7(3.0)	15.6(3.4) a	14.3(3.2)	13.9(3.0)	14.1(3.5) a
	중학생	66.6(11.1) b	12.4(2.6)	13.7(3.3) b	13.5(3.0)	13.6(2.6)	13.8(3.2) b
	고등학생	66.4(9.6) b	12.7(2.9)	13.7(3.1) b	13.4(3.5)	13.9(2.5)	12.8(2.9) b
	F값	4.4*	.39	13.7***	2.4	1.3	3.8*
성별	남	67.8(11.0)	12.9(2.7)	14.6(3.4)	13.9(3.2)	13.9(2.8)	13.4(3.3)
	녀	67.9(11.1)	12.3(2.8)	14.2(3.5)	13.6(3.3)	13.9(2.7)	13.9(3.3)
	t값	-.08	1.8	.92	.74	.01	-1.1
입소 사유	경제적 문제	67.7(9.5)	12.5(2.6)	14.2(3.3)	13.3(2.7)	13.9(2.2)	13.9(3.3)
	가정불화	67.5(11.8)	12.5(2.8)	14.4(3.6)	13.7(3.4)	13.7(2.9)	13.4(3.2)
	부모부재	68.5(11.2)	12.9(2.8)	13.8(3.1)	14.1(3.5)	14.1(2.7)	14.0(3.2)
	F값	.18	.63	.92	.75	.53	.92
입소 시기	취학 전 입소	67.6	12.7(2.9)	14.0(3.2)	13.5(3.4)	13.9(2.7)	13.6(3.1)
	취학 후 입소	68.1	12.5(2.7)	14.6(3.6)	14.0(3.2)	13.8(2.7)	13.6(3.4)
	t값	-.32	.44	-1.8	-1.4	.33	-.003
입소 기간	7년미만	68.3	12.4(2.7)	14.8(3.5)	14.1(3.1)	13.8(2.7)	13.7(3.4)
	7년이상	67.3	12.8(2.8)	13.1(3.3)	13.4(3.4)	14.0(2.7)	13.6(3.1)
	t값	.73	-1.0	2.6*	1.7	-.45	.36
부모 접촉	유	71.2(11.4)	12.7(2.9)	15.3(3.2)	14.0(3.6)	14.5(2.7)	14.9(3.0)
	무	67.3(10.7)	12.6(2.8)	14.2(3.5)	13.7(3.2)	13.7(2.6)	13.5(3.3)
	t값	2.4*	.20	2.3*	.72	2.1*	3.1*
입소전 부모 관계	낮은집단	64(10.3) a	12.4(2.7)	13.6(3.0) a	13.3(3.3)	13.2(2.6)*a	12.3(3.1) a
	중간집단	68.1(10.9)ab	12.8(2.8)	14.2(3.3) a	13.7(3.2)	14.1(2.5) b	13.6(3.3) b
	높은집단	70.8(11.4) b	12.7(2.8)	15.5(3.4) b	14.2(3.3)	14.2(3.1) b	14.8(3.3) b
	F값	5.83**	.49	6.03**	1.04	3.20*	9.90***
보육사 지지	낮은집단	63.8(9.9) a	11.9(2.7) a	13.4(3.0) a	12.9(3.4) a	13.5(2.4)	12.9(3.0)
	중간집단	67.9(9.9) b	12.4(2.5) a	14.2(3.4) a	13.9(2.9) ab	14.0(2.6)	13.9(2.9)
	높은집단	71.1(12.3)b	13.3(2.9) b	15.4(3.6) b	14.4(3.4) b	14.3(3.1)	13.9(3.7)
	F값	9.49***	6.74***	8.46***	5.10**	2.27	2.9

\* p < .05, \*\* p < .01, \*\*\* p < .001

주) ab 동일한 문자간에 집단간 유의한 차이 없음

한편 자아정체감에 대한 관련 변수간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은 성별×보육사의 사회적

지지(F = 4.17, p < .05), 입소 시기×부모접촉 유무(F = 5.82, p < .05), 입소 기간×부모접촉 유무(F=4.11, p < .05)에 따라, 자아미래감은 입소 시

1) 자아정체감에 대한 관련 변수간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자아정체감 및 그 하위 영역에 대해 1) 학년×관련 변수(성별, 입소 사유, 입소 시기, 입소 기간, 부모접촉 유무, 입소전 부모관계,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 2) 성별×관련 변수 3) 입소 사유×관련 변수 4) 입소 시기×관련 변수, 5) 입소 기간×관련 변수, 6) 부모접촉 유무×관련 변수, 7) 입소전 부모관계×관련 변수를 각각 살펴봄.

<표 4>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관련 변수간 상호작용 효과

	변수간 상호작용 효과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자아정체감	성별×보육사 지지	936.9	2	468.4	4.17*
	입소 시기×부모접촉	666.9	1	666.9	5.82*
	입소 기간×부모접촉	475.6	1	475.6	4.11*
자아미래감	입소 시기×부모관계	78.2	2	39.1	3.78*
	입소 시기×부모접촉	47.8	1	47.8	4.15*
자아주도감	학년×부모접촉	61.9	2	30.9	4.71**
	성별×입소 시기	34.9	1	34.9	4.67*
대인친밀감	학년×보육사 지지	98.9	4	24.7	2.48*
	성별×입소 기간	43.7	1	43.7	4.15*
	입소 시기×부모접촉	51.1	1	51.1	4.98*
	입소 사유×보육사 지지	97.0	4	24.3	2.48*

\* p<.05 \*\* p<.01

기×부모접촉 유무(F = 4.15, p < .05), 입소 시기×입소전 부모와의 관계(F = 3.78, p < .05)에 따라, 자아주도감은 학년×부모접촉 유무(F = 4.71, p < .01), 성별×입소 시기(F = 4.67, p < .05)에 따라, 그리고 대인친밀감은 학년×보육사의 정서적 지지(F = 2.48, p < .05), 성별×입소 기간(F = 4.15, p < .05), 입소 시기×부모접촉 유무(F = 4.98, p < .05), 입소 사유×보육사의 정서적 지지(F = 2.48, p < .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났다. 이를 <표 5>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정체감은 입소전 부모와 지지적 관계에 있었던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았으며,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가 지지적이지 못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낮았다. 자아정체감은 취학 전 입소한 아동이거나 입소 기간이 7년 이상된 아동의 경우 부모접촉이 있는 아동과 부모접촉이 없는 아동간에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취학 후 입소한 아동이거나 입소 기간이 평균 7년이 안된 아동의 경우 부모접촉이 없는 아동보다 부모와 접촉하는 아동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자아미래감의 경우, 입소전 부모와 지지적 관계를 경험한 아동이라도 취학 전에 입소한 아동은 취학 후에 입소한 아동에 비해 낮은 자아미래

감을 나타냈다. 또한 취학 전에 입소한 아동은 부모와 접촉하는 경우와 접촉하지 않는 경우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취학 후에 입소한 아동은 부모와 접촉하는 경우가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높은 자아미래감을 나타냈다.

자아주도감의 경우 중, 고등학생은 부모접촉 유무에 따라 자아주도감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와 접촉하는 아동은 접촉이 없는 아동에 비해 높은 자아주도감을 나타냈다. 한편 남아의 경우 취학 전 입소한 아동에 비해 취학 후 입소한 아동의 자아주도감이 높으나, 여아의 경우 취학 전 입소한 아동이 취학 후 입소한 아동에 비해 자아주도감이 높게 나타났다. 대인친밀감의 경우, 초등학생은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높은 대인친밀감을 나타내나 중, 고등학생의 경우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에 따라 대인친밀감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남아의 경우 입소 기간이 7년 미만인 아동이 7년 이상의 아동에 비해 높은 대인친밀감을 나타내나, 여아는 7년 이상 입소한 아동이 7년 미만 입소한 아동에 비해 대인친밀감이 높게 나타났다. 취학 전 입소한 아동의 경우 부모접촉 유무가 대인친

<표 5>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관련 변수간 상호작용

성별	보육사 지지	자아정체감	입소 시기	부모관계	자아미래감
남	낮은 집단(39)	66.6	취학 전 입소	낮은 집단(32)	12.6
	중간 집단(40)	68.6		중간 집단(36)	14.8
	높은 집단(37)	68.7		높은 집단(12)	14.5
여	낮은 집단(42)	61.3	취학 후 입소	낮은 집단(37)	14.4
	중간 집단(66)	67.6		중간 집단(66)	13.9
	높은 집단(46)	73.0		높은 집단(51)	15.8
입소 시기	부모접촉	자아정체감	입소 시기	부모접촉	자아미래감
취학 전 입소	유(20)	66.4	취학 전 입소	유(20)	13.7
	무(68)	68.1		무(76)	14.1
취학 후 입소	유(38)	73.4	취학 후 입소	유(45)	15.9
	무(84)	66.8		무(95)	14.2
입소 기간	부모접촉	자아정체감	학년	부모접촉	자아주도감
7년 미만	유(34)	73.1	초등학생	유(28)	15.5
	무(79)	66.7		무(57)	13.3
7년 이상	유(24)	67.8	중학생	유(28)	13.6
		68.2		무(67)	13.7
			고등학생	유(15)	14.4
				무(45)	14.5
성별	입소 시기	자아주도감	입소 시기	부모접촉	대인친밀감
남	취학 전 입소(65)	13.5	취학 전 입소	유(20)	13.5
	취학 후 입소(77)	14.2		무(77)	13.7
여	취학 전 입소(72)	14.3	취학 후 입소	유(45)	15.3
	취학 후 입소(100)	13.6		무(91)	13.3
학년	보육사 지지	대인친밀감	입소 사유	보육사 지지	대인친밀감
초등학생	낮은 집단(15)	12.2	경제적 문제	낮은 집단(10)	10.8
	중간 집단(36)	14.1		중간 집단(20)	14.5
	높은 집단(53)	14.9		높은 집단(10)	15.4
중학생	낮은 집단(39)	13.5	가정불화	낮은 집단(35)	13.5
	중간 집단(52)	13.9		중간 집단(59)	13.5
	높은 집단(19)	12.5		높은 집단(47)	13.5
고등학생	낮은 집단(34)	12.6	부모부재	낮은 집단(29)	13.0
	중간 집단(31)	13.4		중간 집단(24)	14.2
	높은 집단(17)	12.4		높은 집단(20)	14.2
성별	입소 기간	대인친밀감			
남	7년 미만(73)	13.9			
	7년 이상(69)	12.9			
여	7년 미만(88)	13.6			
	7년 이상(85)	14.1			

주) ( )안 숫자는 사례수를 의미함.

밀감 변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취학 후 입소한 아동의 경우 부모를 접촉하는 아동이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높은 대인친밀감을 나타냈다. 한편 가정불화나 부모부재로 입소한 아동의 경우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에 따라 대인친밀

감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경제적 문제로 입소한 아동의 경우 보육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높은 대인친밀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VI.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자아정체감의 중요 발달 근원이 사회적 대인관계(Erikson, 1968, 1980)임을 고려하여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변수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외된 시설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아동복지육아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5, 6학년 초등학생 131명, 중학생 135명 그리고 고등학생 97명 등 총 363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아정체감을 학년, 성별, 입소 사유, 입소 시기, 입소 기간, 부모접촉 유무, 입소 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와 관련시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및 논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 아동의 학년, 입소 사유, 입소 시기, 입소 기간, 입소 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 간에는 상호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즉 학년이 높은 시설 아동일수록 부모부재로 입소한 경우가 많으며, 취학 전에 입소하는 경향이 크며, 입소 기간이 길며, 시설 입소 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가 낮으며,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부모접촉 유무는 입소 시기와 입소 기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 취학 전에 입소한 아동이거나 입소 기간이 긴 아동일수록 6개월에 한 번 정도도 부모와 접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모부재 아동뿐 아니라 취학 전에 입소하거나 입소 기간이 긴 청소년기 시설 아동의 경우 부모나 보육사 등 중요한 타인과 사회적 관계가 긴밀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시설 내 다른 아동보다 더욱 결손된 심리·사회적 환경에 처해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자아정체감은 학년 및 부모접촉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으나, 입소 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 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학년이 낮을수록, 입소 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가 높을수록, 보육사로부터 높은 정서적 지지를 지각할수록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이상 부모와 접촉하여 상호작용하는 경우, 긍정적 측면에서 더 높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있다. 즉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은 중,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부모와 6개월에 한 번이상 접촉하는 아동이 접촉이 없는 아동보다, 시설 입소 전 부모와의 관계가 지지적인 아동이 그렇지 못한 아동보다, 보육사로부터 높은 정서적 지지를 지각하는 아동이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높다.

자아정체감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과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중, 고등학생보다 자아미래감과 대인친밀감이 높으며, 입소 기간이 7년 미만인 아동이 7년 이상된 아동보다 자아미래감이 높다. 한편 부모와 접촉하는 아동이 부모와 접촉이 없는 아동에 비해 자아미래감, 자아주도감, 대인친밀감이 높다. 또한 시설 입소 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

제가 높은 아동은 낮은 아동에 비해 자아미래감, 자아주도감, 대인친밀감이 높으며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를 높이 지각하는 아동이 낮게 지각하는 아동에 비해 자아목표감, 자아미래감, 자아수용감이 높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이 사회적 대인관계의 주요원(源) 중 하나인 부모나 보육사에 의해 영향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자아정체감이 사회적 대인관계를 통해 발달한다는 Erikson(1968, 1980)이나 Dignan(1965) 등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시설 입소 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에 따라 자아정체감과 그 하위 영역인 자아미래감, 자아주도감, 대인친밀감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은 생의 초기 부모와의 정서적이고 지지적인 애정관계가 이후 자아에 대한 개념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 Bowlby(1973, 1980)의 내적수행모델을 일부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부모부재이거나 취학 전 입소하거나 입소기간이 길거나 입소 전 부모로부터 지지적 관계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거나, 또는 부모접촉이 없어 중요한 타인인 부모로부터 면경자이나 사회적 자아를 충분히 획득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시설 아동의 경우 낮은 자아정체감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를 높이 지각할 때 높은 자아정체감이 보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입소 기간이 긴 중, 고등학생, 취학 전 입소한 아동, 부모부재로 입소한 아동, 6개월 동안 부모와 접촉이 없는 아동, 시설 입소 전 부모와의 관계가 지지적이지 못한 아동들에 대해 보육사의 특별한 애정, 관심, 격려 등과 같은 정서적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자아정체감의 잠재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넷째,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그 하위 변수는 관련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 입소 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가 자아정체

감에 미치는 영향은, 입소 시기가 자아주도감에 미치는 영향은, 또는 입소 기간이 대인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즉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하여 여아가 남아보다 입소 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에 따라 더 민감하게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스트레스 상황이나 경제적 빈곤 등 부정적인 생활 변화에 더욱 취약하며, 여아가 남아에 비해 대인관계에 보다 민감하다는 선행 연구(박민선·박성연, 1999; Elder & Caspi, 1988; Perry & Bussey, 1984)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여아는 취학 전에 입소하거나 입소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아주도감이나 대인친밀감이 높아지지만, 남아는 오히려 낮아진다. 여아에 비해 남아의 경우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느낀다는 선행 연구(양원경·도현심, 1999)의 지적과 유사하게,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육아시설에서의 오랜 생활이 남아의 자아주도감이나 대인친밀감을 더욱 위축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모접촉 유무가 자아정체감이나 자아미래감, 대인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은 취학 전/후의 입소 시기나 입소 기간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즉 취학 후에 입소하거나 입소 기간이 평균 이하인 즉 다른 시설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와 오랫동안 생활하고 입소한 아동일 경우 부모와의 접촉은 높은 자아정체감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자아미래감이나 대인친밀감과 관련한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나 관계 유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접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대인친밀감에 미치는 학년과 입소 사유의 영향력은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재적 역할을 한다는 선행 연구(한미현, 1996; McLoyd & Wilson, 1991)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가 중,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과,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이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토대로 발달(Chubb, et al., 1997)함을 동시에 고려할 때, 초등학생에 대한 보육사의 보다 깊은 관심, 애정, 인정, 수용은 학령기 뿐 아니라 이후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 아동의 사회적 관계를 직, 간접적으로 대표하는 사회적 관계 변수와 자아정체감을 관련시켜 살펴봄으로써,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이 부모나 보육사

등 중요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받고 있음을 규명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타인으로 친구 관계가 부각됨(Hartup, 1993)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친구 관계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지 못했다. 또한 자아정체감 발달에 있어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Erikson의 시각을 토대로,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그들의 사회적 대인관계 측면에서 주로 접근했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성 특성 등을 간과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강완숙(2000). 지각된 부와 모의 가치, 부/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및 부/모의 과잉통제와 대학생의 소외감과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자(1991). 일반 및 시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와 환경지각에 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1993). 시설 아동의 자아개념 및 귀인성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도현심·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4.
- 문진명(2000). 시설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또래피해지각에 따른 또래따돌림 귀인 및 소외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란(1997).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선·박성연(1999). 경제불황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적응. **아동학회지**, 20(2), 57-74.
- 박아청(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 2**,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박영애(1995).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아(1993). 가족 구조, 학교 생활 및 가정생활적응에 따른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지숙(200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27-137
- 변용찬·이상현 (1998). **아동복지 수용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울: 한국사회보전사회연구원
- 성영혜(1993).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원경·도현심(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223-238.
- 어주경·정문자(1999).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

- 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2), 21-40.
- 오경주(1998). 소외아동의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자아 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순·이영(1990). 시설아동의 학문적 자아개념과 귀인성향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1(1), 100-114.
- 조현경(1995). 시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dams, G. R., & Fitch, S. A. (1982). Ego stage and Identity status development: A Cross-sequential Analysi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3), 574-583.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Y: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Y: Basic Books.
- Cassidy, J. (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olds. *Child Development*, 59, 121-134.
- Chubb, N. H. Fetman, C. L., & Ross, J. L. (1997). Adolescent esteem and locus of control: A longitudinal study of gender and age differences. *Adolescence*, 32(125), 113-129.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Cooley, C.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Y: Scribner's.
- Dignan, M. H. (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476-483.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Erikson, E. H. (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Y: Norton.
- Elder, G. H., Jr. & Caspi, A. (1988). Economic stress in lives: Developmental perspectives. *J. of Social Issues*, 44, 25-45.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77-290.
-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7-46.
- Goldberg, S. (1991). Recent development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anadian J. of Psychiatry*, 36, 393-400.
- Hartup, W. W. (1993). Adolescents and their friend, In B. Laursen(Ed.), *Close friendships in adolescence(pp. 3-22)*. San Francisco: Jossey-Bass.
- Mead, G.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 of Youth and Adolescence*, 23, 1-18.
- McLoyd, V. C. & Wilson, L. (1991). The strain of living: Parenting, social support, and child mental health. In A. C. Huston(Ed.), *Children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pp. 105-135)*. NY: Cambridge Univ. Press.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NJ: Prentice Hall.